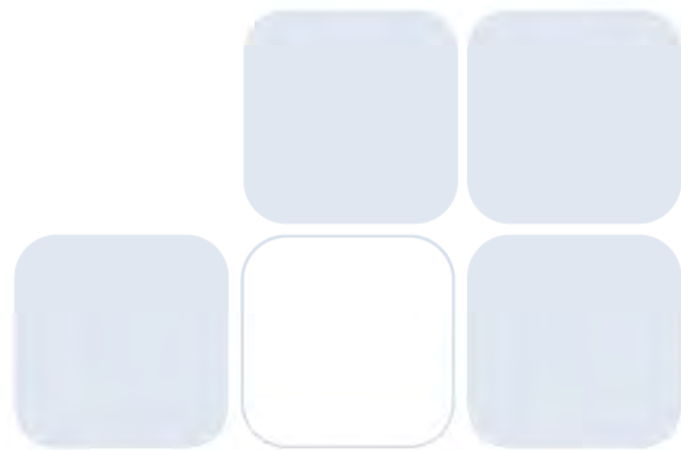




강력한 신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는 “어떤 분야에서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성품과 역량 간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또한 상호간의 신뢰감인 것이다.

제자훈련을 개 교회에 접목하는 데에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의 신뢰감 구축이다. 이 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제자훈련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신뢰가 기반되지 않은 제자훈련은 결국 머지 않아 서로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가게 된다.

올해로 6년째 제자훈련을 실시중인 진해침례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간에 구축된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제자훈련 모델 교회이다. 12년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대열 목사(43)가 진해침례교회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과정과 성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택한 그의 결정에 대한 고백은 제자훈련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대열 목사

제자훈련을

개 교회에 접목하는 데에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간의 신뢰감 구축이다.

이 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제자훈련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신뢰가 기반되지 않은 제자훈련은

결국 머지 않아 서로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가게 된다.

6년간의 검증기간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던 강대열 전도사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당시 진해침례교회를 담임하던 부친 강성찬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부리나케 진해로 내려온 그에게 진해침례교회의 운영위원회(장로교의 당회와 같은 의결기구임. 필자주)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주일날 강단 설교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운영위원회가 강대열 전도사에게 강단을 부탁한 이유는 하나였다. 이전에 진해침례교회에서 교육부서 담당으로 섬길 때 그의 성실함과 신실하게 다가왔던 설교 메시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강성찬 목사는 6개월 뒤에 퇴원을 했다. 마침 자신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던 강성찬 목사는 운영위원회에 좋은 후임자를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여러 사람을 추천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대열 전도사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운영위원회는 다시 강대열 전도사에게 강단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성도들이 강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데,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모실 때까지만이라도 주일 설교를 계속 맡아달라”고 했다. 그렇게 강대열 전도사는 또 다시 진해침례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맡았다. 1년이 지난 뒤, 성도들은 결정을 내리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강대열 전도사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성도들 전체의 중론이었다. 결국 강 전도사는 그렇게 진해침례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때가 1993년이였다.

강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진해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것은 1999년 1월이였다. 그러니까 장장 6년 동안 그는 전도사와 교육목사의 신분으로 진해침례교회를 담임했



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강대열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데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진해침례교회가 강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메시지가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운영위원회는 강 목사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더 거론했다.

첫째는 그의 투명함이었다. 특히 그는 돈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투명했다. 다른 교회에서 강사 사례를 받으면 그 교회나 진해침례교회에 전부 현금했다. 둘째는 성도들에 대한 자세였다. 그는 교인들의 경조사를 인도한 후에 감사 명목의 사례를 일체 거절했다. “내가 맡은 양을 위한 일에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성도들은 이런 강 목사의 태도에서 강 목사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금새 알아챌 수 있었다. 셋째는 솔선수범하는 그의 자세였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움직였다. 하다못해 교회 친교실을 만드는 일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함께 일을 했다. 담임목회자라고 해서 대접을 받으려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는 어디로 가든지 제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임시로 맡고 있는 위치였지만,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섬겼지요. 그 결과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 목사의 태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강 목사가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지려는 목자라는 신뢰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본 진해침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강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 강 목사라면 우리를 책임져줄 만한 목회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검증 기간과 5년간의 동역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진해침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 바로 그 모습!”이라고 강 목사를 설명한다.

진해침례교회가 강대열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준다. ‘세습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진해침례교회가 강대열 목사를 선택한 것은 그의 자세에서 나오는 통전성(integrity) 때문이었다. 성도들은 강 목사에게서 ‘결과 속이 다르지 않은’, 혹은 ‘시종일관된 자세’라고 설명할 수 있는 통전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원칙 중심의 제자훈련이 가능했던 이유

대학 시절, C.C.C.에서 활동했던 강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훈

제자훈련은

철저한 생활 훈련이었다.

신앙인으로서의 습관과 지식이 실제 생활과

일치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이해한 제자훈련이었다.



련목회에 관심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침례교단에는 성인 주일 학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강 목사는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차근차근 양육했다. 매주 소그룹으로 진행된 성경공부 시간은 교회 내에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였다. 그는 이들에게 훈련목회의 중요성과 자신이 앞으로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나누었다.

1998년에 열린 제39기 CAL세미나는 그에게 훈련목회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그는 “제자훈련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훈련목회에 대한 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라”는 옥한흠 목사의 말을 통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침 1999년은 그가 담임목사로서 위임받아 진해침례교회를 섬기게 되는 해였다. 그는 위임의 자리에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가 선포한 진해침례교회의 네 가지 비전 중에 핵심은 “평신도가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 그는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될 평신도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목회에 동역하도록 사역을 위임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미 강 목사에 대한 신뢰가 든든히 구축되어 있었던 성도들은 강 목사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그대로 수용했다.

강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를 닮아갈 것을 강조했다. 자신의 말하는 습관이나 시간 사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하는 훈련을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제자훈련은 철저한 생활 훈련이었다. 신앙인으로서의 습관과 지식이 실제 생활과 일치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가 이해한 제자훈련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에 훈련의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그가 제자훈련을 하는 3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간은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큐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점검했다. 삶의 변화에 민감하고, 훈련에 대한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인도자로서 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다른 숙제도 마찬가지로였다. 나이와 상황을 불문하고 성구는 정확하게 암송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외운 것을 백지에 시험을 치는데, 대부분이 64구절 모두 100점을 받았고, 토시 하나 틀리는 사람이 두 명 정도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석은 용납하지 않았다. 두 번 이상 결석하면 탈락시켜 다음에 다시 훈련받도록 했다.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강 목사의 원칙 중심적 훈련을 이해하고 이내 수용했다.

이렇게 강력한 훈련 과정이었지만, 성도들은 강 목사와 함께 하는 훈련을 사모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겠다

진해침례교회가

강대열 목사를 선택한 것은

그의 자세에서 나오는 통전성(integrity) 때문이었다.

성도들은 강 목사에게서 ‘결과 속이 다르지 않은’,

혹은 ‘시종일관된 자세’라고 설명할 수 있는

통전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 진해침례교회의 훈련 시스템

진해침례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 모임을 수료하고, 목장에서 3년간 성실히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다. 별도로 성경공부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는 데 필수 과정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공부 과정은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자훈련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목장에서 성실히 참석한 것을 제자훈련의 자격으로 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3년 동안 목장에 의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는 진해침례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세우기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둘째, 3년 동안 목자는 그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훈련받기에 충분히 성장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제자훈련을 받을 만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당연히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목자의 눈에 보기에 합당할 만큼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훈련에 들어오면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의 과정을 거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다.

성경공부 과정은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각 성경공부반은 훈련을 마친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역자가 책임지고 있다. 앞으로 각 권별로 성경공부반을 계속 늘릴 계획인데 훈련을 마친 지도자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강 목사의 계획이다.

고 지원하는 바람에 훈련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더욱 높아졌다. 매일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지원자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한 지 3년이 채 안 됐다는 이유로 탈락할 정도로 원칙을 강조했다. 누구나 받아야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은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자훈련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교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서든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뢰감은 제자훈련의 기준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원칙에 의해 실시된 제자훈련을 통해 진해침례교회는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

영혼을 책임지는 동역자들

강대열 목사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역동적이고 영적인 힘을 지닌 건강한 교회로써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여겼다. 그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교회의 목양 조직도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목장 사역이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기존의 구역 조직을 목장 조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강 목사는 “기존 구역이 관리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목장 사역은 철저한 양육 중심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을 조직하기 위해 목장 사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목장 사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된 목자들이 필요했다. 다행스럽게도 진해침례교회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준비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의 부친 강성찬 목사가 강조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

강성찬 목사는 전도를 강조하기로 유명한 목회자였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던 진해침례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바꾸어 놓았다. 강성찬 목사가 담임할 당시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로 훈련받았다. 그리고 전도한 한 영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강 목사는 이렇게 훈련된 기존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목장을 맡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진해침례교회에서 34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미영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강성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었다면, 강대열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통해 그 영혼을 양육하는 방법과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양육을 중요시하는 진해침례교회 목장 사역의 핵심은 목장 모임이 아닌 목자에 있다.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양육이 결정된다. 진해침례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세지 않는다. 목장 모임에 몇 명이 나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대로 양육했느냐이다. 그렇기에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강 목사가 “자신이 10명을 맡고 있으면 한 주간에 목장 모임이 열 번일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라”고 목자들에게 주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들 모두가 부담스러운 주문대로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목자로 섬기는 김재덕 집사(41)는 목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자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목자라면 한 마리의 양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주문은 강요가 아니라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자들은 보통 한 주일에 세 번 이상 자신이 맡은 목장의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 약속을 한다. 바쁘게 움직여도 입에 풀칠하기 어렵다는 요즘 현대인의 생활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헌신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정규 예배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빼고 일 주일에 세 번 이상 교회를 위해 시간을 따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시간이 아깝다거나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이가 없다. 오히려 한 명도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성도들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이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해로 이사 온 임정승 집사는 목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에는 서울과 다른 환경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아쉬워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에서는 한 영혼도 절대로 그냥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비단 장년 목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 목사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진해침례교회에서는 장년 소그룹 리더나 주일학교

진해침례교회에서는

장년 소그룹 리더나 주일학교 교사나 똑같이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들로 인정한다.

단 한 명의 어린 영혼도 훈련받지 않은 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강 목사의 철학이다.



* 진해침례교회의 훈련 상황

육한흠 목사는 “제자훈련 받은 평신도 지도자가 전체 교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전체 구성원 중에 리더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리더십의 20/80법칙에서 기인한 말이다. 그런데 진해침례교회는 이 비율을 가뿐히 넘어서었다. 52개 목장과 11개 마을로 구성된 진해침례교회에서 적정한 리더의 수는 70여 명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제자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모두 140여 명에 이른다. 주일 낮예배 성인 출석 인원이 500여 명 정도인 교회로 치면 꽤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진해침례교회를 담임하는 강대열 목사의 앞으로의 계획이다. 그의 계획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강 목사가 말하는 리더란 조직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는 자이다. 따라서 영혼을 책임지는데 꼭 소그룹 리더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강 목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자체적으로 목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목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은 장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사와 리더들도 모두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다. 이미 진해침례교회에서는 약 70여 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4년에 걸쳐 모두 제자훈련을 받았다.

리더의 비율을 20%가 넘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훈련은 받았는데 사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받은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사역을 맡겨줘야 한다. 진해침례교회에서 훈련생의 비율이 20%를 넘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 모두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인원이 제자훈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질적 수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제자훈련의 원칙과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훈련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맡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훈련의 수준이 높아도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교사나 똑같이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들로 인정한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년 목장의 목자와 똑같이 제자훈련을 수료해야만 한다. 단 한 명의 어린 영혼도 훈련받지 않은 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강 목사의 철학 때문이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장년 목장 목자들과 같이 주중에 아이들과 만나서 별도의 양육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하여 생활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겠다는 것이 강 목사의 의도이다.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을 품은 목자들은 강 목사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강 목사가 제시하는 목장 사역에 대한 비전은 자신의 비전이었고, 강 목사가 주문하는 목자의 사명은 부담스러운 강요가 아닌, 목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었다. 강 목사에게 있어서 이들은 말 그대로 ‘동역자’(同役者)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이 맡은 목장의 성도들을 모두 양육하기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모임을 가지는 진해침례교회 목자들에게 이런 헌신의 자세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영혼을 책임지라’는 분명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가능케 하는 훈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들은 강대열 목사가 제시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훈련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신뢰라는 요소가 거름처럼 작용했기 때문이다.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기쁜 목회

강 목사는 “앞으로 가능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사역의 공유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다. 심지어 제자훈련 사역까지도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겼다.

지난 2년간 여제자반을 맡은 정미영 집사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제자훈련 인도자로 인정하는 평신도 지도자이다. 정 집사에게 훈련받은 목자들은 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생과 비교해서 조금도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덕분에 강 목사는 남제자반도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한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맡고, 자신은 사역반을 전담하는 것이 강 목사의 생각이다. 2005년에 남제자반을 맡게 된 김찬성 집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인 줄은 알지만,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리고 짐을 함께 나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자훈련 인도자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제자훈련 사역을 함께 동역하려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간에

강력한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김찬성 집사는 순전히 내년엔 제자훈련을 인도하기 위해 올해 다시 한 번 강 목사에게서 제자훈련을 받는다.

사실 제자훈련을 평신도에게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내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훈련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자훈련 인도자로서의 권위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제자훈련은 다락방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맡기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없다. 사랑의교회의 경우에도 장로들이 인도하는 제자반은 60세가 넘는 실버 제자반이다. 물론 사랑의교회가 제자훈련의 기준일 수는 없다. 그러나 평신도가 제자훈련을 맡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평신도 지도자가 제자훈련 사역을 동역하려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간에 강력한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가 제자훈련을 인도할 만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 강 목사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나라고 아무에게나 제자훈련 사역을 나누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해침례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은 강대열 목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형성된 강력한 신뢰를 통해 가능해진 일이다. 그들은 제자훈련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공유되어 있다.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없다”고 말하며 웃었다. “동역자들이 너무나 신뢰해주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서 진해침례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구축된 신뢰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신축중이라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감이 많을 텐데 오히려 매 주마다 한두 가정씩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교회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을 책임지는 동역자들이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다”며 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이 아무도 배정되지 않은, 개척자적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의 이런 꿈과 소망이 헛된 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곁에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짐을 나뉘지려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순중 기자〉